

[아마존] AWS-엔비디아 GPU 200 만개 추가 공급 및 정부용 데이터센터 계약 - AI 인프라 확장과 설비투자 부담의 이중 신호



26.08.27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핵심 요약

- AWS-엔비디아, GPU 200 만개 추가 공급 계약 발표
- 정부용 데이터센터에 GPU 10 만개, 보안 AWS 인프라 기반
- AI 수요 확대 vs 설비투자 부담, 밸류 재평가 여부 관건

AWS(아마존웹서비스)와 엔비디아가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용 차세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200 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발표했다. 같은 날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는 자사와 AWS가 미국 정부용 데이터센터에 GPU 10 만개를 투입하며 이를 보안이 강화된 AWS 인프라 위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두 건 모두 속보 헤드라인으로 전해져 계약 금액이나 기간 같은 세부 조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발표는 우리가 핵심 동력으로 짚어온 AWS의 AI 수요 확장이 자체 개발 칩 트레이니엄 중심에서 엔비디아 GPU 조달까지 넓어지는 흐름으로 읽힌다. 직전 분기 AWS 매출 성장률은 5 분기 연속 가속하며 36.7%까지 올라섰고, AI 사업과 칩 사업 모두 연환산 250 억 달러 이상 런레이트에서 세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200 만개 규모 GPU 공급과 정부 부문 데이터센터 수주는 이 수요 저변이 민간 AI 워크로드를 넘어 공공 부문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GPU 물량 확대는 곧바로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회사는 앞선 실적 콜에서 26 회계연도 현금 설비투자 가이드언스를 약 2000 억 달러에서 약 2200 억 달러로 상향하며 메모리 원가 상승과 수요 대비 용량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번 계약이 그 가이드언스에 이미 반영된 범위인지 추가 증액 요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직전 분기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시점에 나온 대규모 인프라 확장 발표인 만큼, 수요 확대와 자본지출 부담이 함께 커지는 구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가에는 방향이 갈리는 재료다. AI 인프라 수요가 살아있다는 확인 자체는 긍정적이나, 이미 압축된 밸류에이션 아래에서 시장이 이를 매출 성장 신호로 받아들일지 설비투자 부담 확대 신호로 받아들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음 실적에서 이번 계약이 AWS 백로그와 26 회계연도 설비투자 가이드언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 정부 부문 수주가 AWS 매출 믹스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재무 요약 (I/B/E/S 컨센서스)

항목	FY Dec-24	FY Dec-25	FY Dec-26 (E)	FY Dec-27 (E)	FY Dec-28 (E)
매출 (Revenue)	637.96	716.92	828.55	948.74	1,099.78
↳ 증가율	10.99%	12.38%	15.57%	14.51%	15.92%
매출총이익	311.67	360.51	426.00	498.58	582.77
↳ 마진	48.85%	50.29%	51.41%	52.55%	52.99%
EBITDA	144.16	169.84	216.45	282.12	364.96
↳ 마진	22.60%	23.69%	26.12%	29.74%	33.19%
영업이익 (EBIT)	68.59	79.97	109.71	140.71	182.87
↳ 마진	10.75%	11.16%	13.24%	14.83%	16.63%
순이익	59.25	77.67	138.63	116.86	152.32
↳ 마진	9.29%	10.83%	16.73%	12.32%	13.85%
EPS	5.53	7.17	12.85	10.60	13.95
↳ 증가율	90.69%	29.66%	79.19%	-17.52%	31.65%
잉여현금흐름 (FCF)	32.88	7.70	-18.71	-28.32	25.54
P/E	39.7x	32.2x	20.3x	24.6x	18.7x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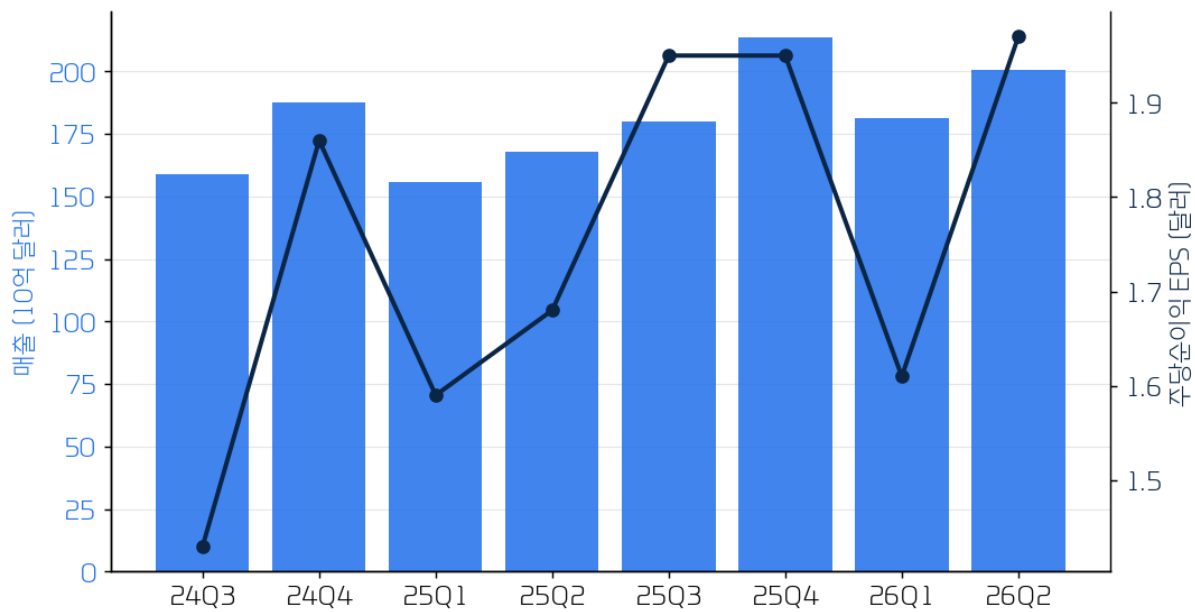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YoY, 단위는 십억 USD

참고 차트

AMZN 주가·12개월 선행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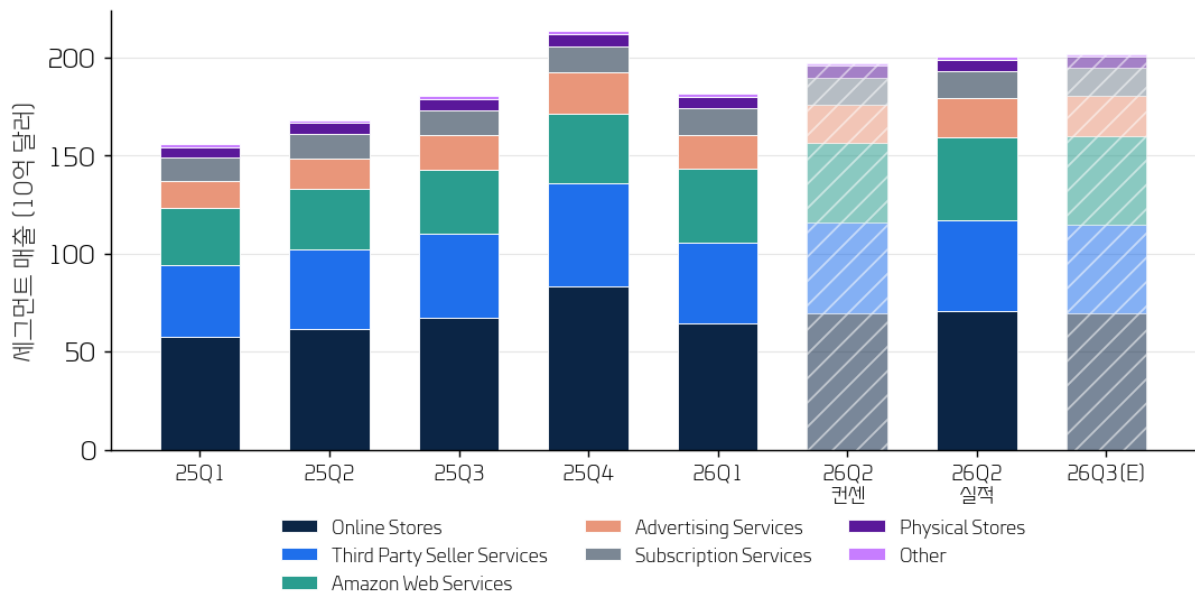


AMZN 분기 매출·주당순이익(EPS) 과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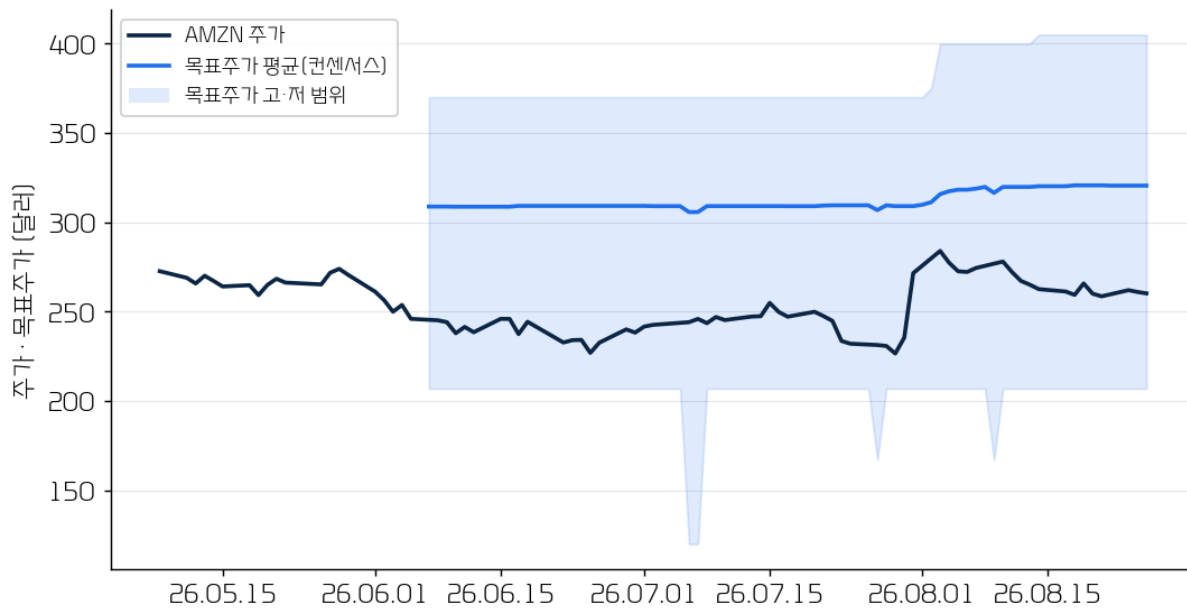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MZN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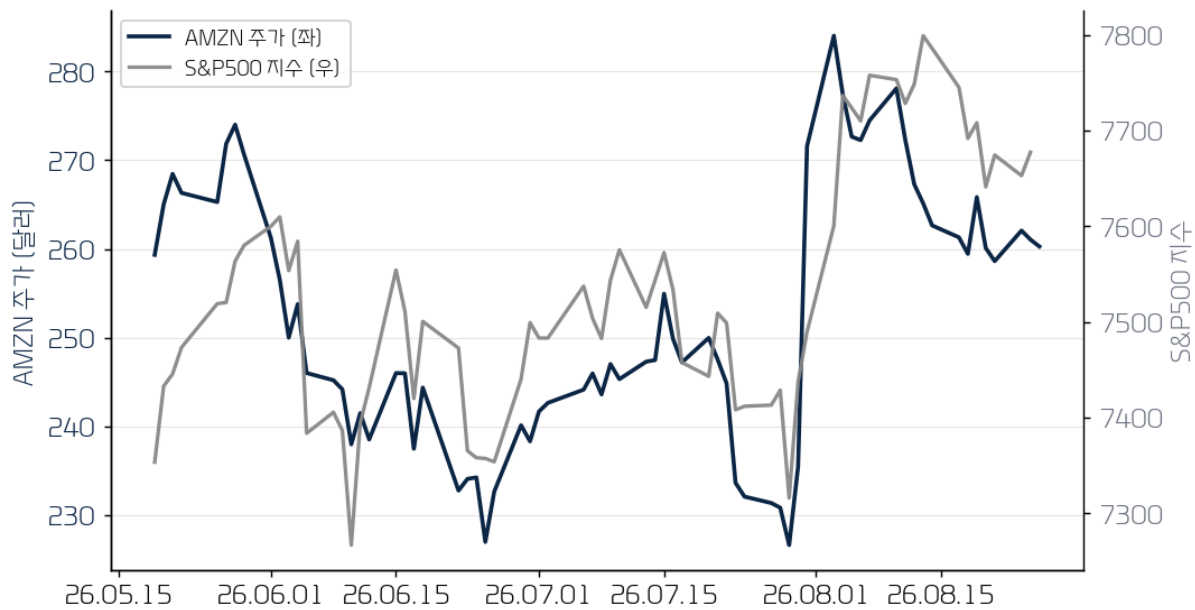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MZN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MZN 주가 vs S&P500 (최근 90 일)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